사랑하는 동역자님,

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.
8 월에 한국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.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잘 복구되길 기도해 주십시오.

저희 프론티어스 코리아는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가지 가정과 사역에 관련된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.
무엇보다 사역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.
선교사 자녀들은 3 중문화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진정한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.
한국사람인데 한국에 오면 모든 것이 좋지만 조심스럽고 낯선 것같은 느낌, 현지에서는 현지 그 문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깨우쳐주는 그런 문화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
서양사역자들과 만나서는 서양문화에 노출되어서, 더욱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.
10 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 큰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역현장에서 누구 못지않게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.
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킬 수도 없고, 시켜서도 안될 것입니다. 어디에서 키우든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이고 이들을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자신을 가꿔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책무라고 믿습니다.

필드에서 자녀양육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
부모교육세미나를 9 월 16 일부터 10 월 7 일 까지 매주 금요일 4 주간 진행하게 됩니다.
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은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
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 받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.
우리 사역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우리 본부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과 가정이 정서적으로, 영적으로, 육체적으로 모두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소망하고 대표로서 이들을 잘 인도하고 섬기길 원합니다.

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.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.

변함없는 사랑과 중보에 감사드리며…

이현수, 진 드림